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한국의 그리스도교*

- 한국 그리스도교의 바탕을 중심으로 -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요 약〉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는 20세기 초 교육활동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한 독일의 수도원 성 베네딕도회 오티리엔 연합회의 초대 수석 아빠스총원장이다. 베버 총원장이 당시 한국의 경향 각지를 두루 여행하면서 남긴, 종교와 신앙, 문화와 예술에 대한 치밀하고도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학술적인 심층 연구는 가톨릭교회 내의 중요성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둔 국내의 인문학 연구 전반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르베르트 베버 총원장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저술과 영상 자료 등에 나타나는 1910년대와 1920년대 한국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접근이다. 베버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 가톨릭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바탕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내면의 겸손과 절제, 둘째 가족 중시 문화, 셋째 ‘품앗이’로 대표되는 노동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순교자를 배출한 거룩한 전통인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의 문화와 종교, 예술, 한국 사람과 역사에 대하여 따뜻한 눈길로 애정을 보였던 유럽인 수도원장의 모습을 오늘에 되살려내 재조명함으로써, ‘다종교 다문화’라는 특징을 지니는 오늘의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현대 종교인의 사명에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베버는 한국 연구를 유럽에서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다. 그의 여행기, 스케치, 영화, 유물 수집, 상트 오티리엔 선교박물관 설립 등으로 베버는 최초의 한국학자로 불려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또한 베버가 보여준 오늘날 ‘새로운 복음화’ 개념에 대한 선구적 각성이라든가, 현대 선교학의 정립에 기여하여 독일의 대학교에 선교학 강좌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영향을 끼친 점도 새로운 조명과 더 깊은 연구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핵심 주제어: 노르베르트 베버, 고유문화, 겸손과 절제, 가족 중시, 노동공동체, 품앗이, 순교자 전통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심 교정(국제캠퍼스)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1870~1956)는 20세기 초 교육활동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한 독일의 수도원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의 초대 수석 아빠스[총원장]이다.¹⁾ 베버가 입회하여 활동한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의 창설자는 스위스 출신의 안드레아스 암라인(Andreas Amrhein 1844-1927) 신부이다. 암라인 신부는 1870년에 베네딕도회 수도자가 되었으며, 1884년에 새로운 방식의 선교활동을 위한 베네딕도회로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을 창설하였다. 노르베르트 베버는 1897년에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도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02년부터는 대수도원(abbatia; Erzabtei)으로 승격된 수도원의 초대 총원장(abbas; Erzabt)으로 30년 가까이 소임을 맡아 하였다.²⁾ 그러므로 베버의 선교 정책이나 방침은 창설자의 정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³⁾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의 창설자 암라인 신부의 수도회 창설 이념은 한 마디로 ‘융복합 문화선교’라고 명명할 만하다. 단순히 일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고립적인 선교 내지 사목활동-이른바 포교 암자-의 한계를 목격한 암라인은 사목자인 사제뿐 아니라 수사, 기술자, 의사, 미술가, 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람들의 실생활에도 기여하는 전 방위적인 선교활동을 꿈꾸었다.⁴⁾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방식에는 베네딕도 수도회와 같은 공동체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미 사목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교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적인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실현시켜나가고자 하였다.⁵⁾

1) 베버의 좀 더 자세한 이력 및 한국 방문시의 일정 등에 관해서는 줄고 및 다음 글을 참조. 박일영,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조선의 종교. 전통종교와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5(한국종교학회, 2009 여름), 35-63쪽. 특히 38-42쪽: “노르베르트 베버는 누구인가?”; Johannes Mahr, *Aufgehobene Häuser. Missionsbenediktiner in Korea und Nordost-China*, St. Ottilien: EOS Verlag, 2009b, 왜관수도원 편역, 『분도통사』(분도출판사, 2009), 191-198쪽 참조: “노르베르트 베버 아빠스.”

2) 총원장으로서 노르베르트 베버의 추진력과 역동적인 수도회 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평가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Cyrill Schäffer, *Ave Maris Stella. Größe und Grenzen des ersten Erzabtes von St. Ottilien P. Norbert Weber OSB(1870-1956)*, Lizentiatsarbeit Universität München 2000; Johannes Mahr, “Sein Reich ist zunächst auf dieser Welt.” Erzabt Norbert Weber als Organisator benediktinischer Missionsarbeit, in: Godfrey Sieber/Cyrill Schäffer, ed., *Beständigkeit und Sendung*(St. Ottilien, 2003), pp.103-179.

3) 백 플라치도, 『한국에서의 초기 베네딕도회의 선교방침』, 『한국교회사 논문집』 1(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772-776쪽 참조: “성 오틸리아 수족 베네딕도회 창설자의 기본 선교방침.”

4) 이유재는 이와 같은 선교형태를 띠게 된 주된 이유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가톨릭교회가 ‘근대의 타자’로 공격 받았던 데 대한 자구책으로 시행되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유재,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본 식민지 조선: 가톨릭 선교의 근대성』, 『서양사연구』 32(한국서양사연구회, 2005), 149-187쪽 참조.

5) 암라인 신부가 이와 같이 ‘문화선교’에 눈길을 돌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일찍이 동양문화나 중국의 고전에 관심을 가졌던 데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879년 5월 17일자로 된 그의 서간

암라인이나 그의 뒤를 잇는 베버의 문화선교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요인을 들라면, 그것은 당시 독일의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겠다. 프로이센을 통일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반 가톨릭적인 소위 문화투쟁(Kultur-kampf)⁶⁾이 오히려 독일 가톨릭교회로 하여금 민족문화 내지 고유문화(native culture)에 대한 자각과 존중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

베버 총원장이 당시 한국의 경향 각지를 두루 여행하면서 남긴, 종교와 신앙, 문화와 예술에 대한 치밀하고도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학술적인 심층 연구는 가톨릭교회 내의 중요성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둔 국내외 인문학 연구 전반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르베르트 베버 총원장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저술과 영상 자료 등에 나타나는 1910년대와 1920년대 한국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접근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인 수도원장의 눈에 비친 20세기 초 당시 한국 천주교회의 실상을,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그리스도교의 바탕에 대한 베버의 관찰과 해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첫 목적을 둔다.

이 연구는 당시 선교사들을 조선에 파견하였던 독일 베네딕도회의 최고위 책임자였던 노르베르트 베버 총원장이 1911년에 방한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록하였던 그의 방대한 저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Im Lande der Morgenstille*, 초판: 1914; 재판: 1923)를 근간으로 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게 하여 베버 총원장의 눈에 비친 100년 전 당시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천착할 것이다. 보조적으로는 그의 1925년 두 번째 한국여행 관련 저서 『수도자와 금강산』(*In den Diamantenbergen Koreas*, 1927)도 살펴본다.⁸⁾ 또한 한국 및 만주에 파견된 선교사들과 주고받은 ‘선교 보고서’들을 활용할 예정이며, 베버가 그의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 제작한 ‘기록영화’의 영상들도 참조할 예정이다.

에는 그가 이미 1867년에 중국 고전인 『논어』를 중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으며, 동양문학이나 종교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근대 종교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Max Müller가 영국 왕실에서 “Plea for the Science of Religion”이라는 강연을 한 1870년을 종교학의 원년으로 삼는 것이 통설이라면, 암라인의 『논어』 번역은 그보다도 3년이나 빠른 시기인 것이다. 백 플라치도, 앞의 글(1984), 773쪽 참조.

- 6) 박근제, 『19세기 후반 독일의 사회문화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제11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7) 조현범, 『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문화 연구』, 『교회사연구』 33(한국교회사연구소, 2009/12), 성 베네딕도회의 한국 선교와 문화활동 심포지엄 특집, 왜관, 2009, 167-222쪽. 특히 169-177쪽. 여기서 조현범은 신생 통일국가 프로이센이 제국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일 내의 천주교회를 차별할 목적으로 이른바 ‘문화투쟁’을 감행하게 된 배경과 그 경과에 대하여 상세한 전말을 정리해 주고 있다; 노르베르트 베버, 앞의 자료(2009)도 함께 참조.
- 8) 이상의 두 여행 관련 저서는 베버가 한국 여행 당시 기록한 일기(Tagebuch, TB)를 원 자료로 하여 집필되었다.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 문서고(Archiv St. Ottilien, ASO) A1.8.1 Norbert Weber, TB 1911 und TB 1925.

베버 총원장은 그의 한국 여행기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와 『수도자와 금강산』, 그리고 영상기록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국의 풍습, 종교와 신앙, 베네딕도회의 선교활동상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20세기 초반 한국의 종교 일반, 민간의 신앙과 더불어, 천주교회를 위시한 한국 그리스도교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면밀한 평가와 예지력 있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한국 관련 첫 번째 저술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가 갖는 이와 같은 엄청난 가치에 대하여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그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⁹⁾ 마침 베버의 한국 방문[1911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중요한 연구를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기왕에 연구자가 시도한 바 있는 베버의 조선 전통종교에 대한 연구¹⁰⁾ 및 민간 신앙 내지 민중종교에 관한 선교회들 간의 서로 다른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¹¹⁾의 후속작업으로 베버가 지금으로부터 꼭 백 년 전에 찾아 나섰던 한국 그리스도교의 실상과 가능성을 찾는 작업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II. 베버가 본 한국 그리스도교의 바탕

1911년 2월, 한국을 향하여 첫 항해를 계속하는 중에 들리게 된 일본에서 그리스도교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베버의 분석은 독특하면서도 심층적이다. 일본인들이 현세적인 성향과 일본 정부의 국가주의적 종교정책이 그리스도교를 반국가적인 단체로 낙인찍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7-9).¹²⁾ 베버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에 비하여 한국은 대조적으로 가톨릭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바탕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내면의 겸손과 절제, 둘째

9) 『베버 저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국교회사 연구입문 45』, 『교회와 역사』 60(한국교회사연구소, 1980년 8월 25일), 1쪽에서는 본서에 대한 간소한 소개와 함께 “완역 간행을 학수고대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다. 벌써 31년 전의 일이다. Johannes Mahr, *Aufgehobene Häuser. Missionsbenediktiner in Korea und Nordost-China*, St. Ottilien: EOS Verlag, 2009b, 왜관수도원 편역, 『분도통사』, 분도출판사, 2009, 197쪽: “이제야말로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의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내용을 검증할 때라고 생각한다.”

10) 박일영,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조선의 종교. 전통종교와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5(한국종교학회, 2009 여름), 35-63쪽.

11) 박일영, 『한국 사머니즘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대응태도 비교연구. 파외의방전교회와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1(한국무속학회, 2010/8), 151-177쪽.

12) Norbert Weber, *Im Lande der Morgenstille*, Oberbayern: Missionsverlag St. Ottilien, 재판: 1923(초판: 1914). 노르베르트 베버, 박일영/장정란 공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분도출판사, 2012(근간). 이하 본서 제1장의 많은 부분도 일본인의 반 그리스도교적 성향에 대하여 할애되고 있다. 필자가 공역자로 참여한 본서의 초역은 이미 탈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출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하의 본문 괄호 속의 숫자는 본서 원본(1923년 재판본)의 쪽수를 가리킨다.

가족 중시 문화, 셋째 ‘품앗이’로 대표되는 노동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자를 배출한 거룩한 전통인 것이다.

1. 내면의 겸손과 절제

베버는 본인 스스로가 화가로서 한국의 풍경이나 사물들에 대하여 여러 편의 수채화와 정교한 스케치들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예술품을 알아보는 탁견을 가지고 있었다. 금강산 여행 중에 만난 어느 일본인 화가가 본인이 그린 금강산 그림을 매입해 주기를 원하였지만, 베버는 그의 그림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혹평하였다.¹³⁾ 그런가 하면 겸재 정선의 금강산 진경산수화의 가치를 한 눈에 알아보고, 그 그림을 구입하여 독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¹⁴⁾

베버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지닌 탁월한 재능을 내면의 겸손한 성품과 자기 절제에 의하여-요란하게 과장하지 않고-우아하고 기품 있게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독일인 지휘자가 이끄는 음악학교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감탄을 쏟아내는가 하면, 한국 전통음악의 소박한 악기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서양의 악기와 비교를 시도한다(114-115). 그런가 하면 일본과 한국의 춤과 음악을 비교하면서, 한국 춤의 동작은 우아하고 정적이며 부드러운 형태를 드러내면서 청정하고 조화롭다고 평한다. 유럽 무용과의 비교가 이채롭다. “무용이라고 하면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것인 줄로만 아는 우리 유럽인들과는 사뭇 다른 예술적 취향과 감각이 아닐 수 없다.”(117)

이러한 진술에서 풍기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성품에 대한 베버의 인상은 내면의 ‘겸손과 절제’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러한 성품을 지니게 된 데에는 수도 내지 수행의 전통을 중시하는, 불교를 위시한, 고등종교의 오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머나먼 타국의 깊은 산 속 [불교] 수행자들의 높은 뜻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한다. 번뇌를 벗어나 깊은 산 속을 찾아 수행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

13) Norbert Weber, *In den Diamantenbergen Koreas*(Oberbayern: Missionsverlag St. Ottilien, 1927), 김영자 역, 『수도사와 금강산』(푸른 숲, 1999), 110-120쪽 참조.

14) 감정가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이 그림들은 2009년 베네딕도회 한국 진출 100주년을 기하여 한국으로 무상 반환되어 왜관 베네딕도회 수도원에 보관되고 있다. KBS1-TV, 〈수도원으로 간 겸재 정선, 80년만의 귀환〉, 2009년 10월 3일 방영 참조. 베버가 수집한 한국 미술품들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에 관하여는 다음 글들을 참조. 유준영, 「20세기 초 Norbert Weber의 한국 미술품 수집과 비평」, 『미술사학보』 9(미술사학연구회, 1996); 유준영, 「성 오티리엔(St. Ottilien) 수도원 소장 겸재 화첩」, 『미술자료』 19(1976).

15) 뒷사람에 대한 예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인사의 법도가 다양하게 발달한 사실, 한국인이 지닌 소박한 색채감, 자연을 대하는 겸허한 태도 등에서 베버는 내면의 겸손함이 자기 절제라는 표현으로 드러난다고 파악하고 있다. 노르베르트 베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영상 해설본], 왜관: 베네딕트미디어, 2009, 곳곳 참조.

니다. 우리 기독교 수도자들도 속세를 떠나 채소밭을 일구면서 청빈한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들은 기도와 명상의 생활을 지속해 나갔다. 세월이 흘러 이러한 은둔생활이 서구인들에게는 이제 ‘폐쇄’로 인식되었고, 한국의 수행자들에게는 ‘관습’이 된 것 같았다. 이런 수행법은 민족정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¹⁶⁾

예술적 안목과 소양을 지녔던 베버는 특히 정제미(精製美)를 보여주는 한국의 전통 고가구들 속에 녹아들어 있는 장인들의 절제된 품격에 대하여 더할 나위없는 찬사를 보낸다. 한국의 전통 장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사려 깊은 자기 절제를 통하여, 자신들의 작품 속에 ‘채울 것과 비울 것’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만듦으로써 완성도 높은 예술품을 이룬 데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 물건[고가구]들은 완성된 예술품들이다.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생각을 가다듬어서 만든, 이 훌륭한 예술품들은 작가가 어디에 무엇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만든 작품들이란 말이다. 절제된 품격이 이러한 예술품에 매력을 더해 준다. 그 잔잔한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線)의 구성을 더 강조해 준다. 이렇게 조용한 모습으로 전체 작품은 빛을 더한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능숙하게 만들어진 작품의 우아한 움직임은 가치를 더해 간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그 작품 안에 새겨진 문양의 어떤 한 획도 눈을 버리도록 방해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영롱하게 빛나는 재료에다가 보태어진 유약이 더욱 효과적으로 빛을 발한다. 아무것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¹²¹⁾

이러한 겸손과 절제의 품격을 내면에 지닌 한국인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베버는 보았다. 그와 같은 성품이 한국의 가톨릭교회 안에서 평등과 배려라는 전통을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 초창기 공동체의 책임자들이나 봉사자들이 밑으로부터 선출되었으며, 그러한 전통은 여전히 평신도 지도자들의 선출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도 주목하였다.¹⁷⁾

2. 가족 중시 문화

베버는 1884년부터 동 아프리카 - 현재의 탄자니아 - 에서 시행해 온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의 선교방식과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였다. 아프리카 선교가 실패한 원인을 베버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와 노동이 결핍된 데에서 보고 있다.¹⁸⁾ 그만큼 베버에게 수도원의 가족생활은 선교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아

16) Norbert Weber, *In den Diamantenbergen Koreas*, Oberbayern: Missionsverlag St. Ottilien, 1927, 김영자 역, 『수도사와 금강산』(푸른 숲, 1999), 43쪽.

17) Cfr. Norbert Weber, *Gottes Wege. Ein Blick in die koreanische Missionsgeschichte*(St. Ottilien, 1917).

프리카의 경우와는 달리, 유교적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윤리적 삶의 바탕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본 것이 베버의 판단이었다. 그러한 윤리적 삶의 바탕에 정밀하게 발달된 가족제도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내세운 유교적 덕목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부모 사랑과 참다운 권위를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었다.¹⁹⁾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하여 베버가 주목한 현상은 특히 혼례(婚禮)와 상례(喪禮)이다. 혼례와 상례에서도 베버는 가족 형성과 가정 유지의 중심가치인 효성(孝誠)을 찾아내었다. 그래서 베버는 1925년의 두 번째 한국 여행 시에 대동한 촬영기사로 하여금 함경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내평 지방에서 일부러 혼례식을 연출하여 촬영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²⁰⁾ 그러나 혼례와 관련하여 조혼과 함께 부부간에 나이 차이로 인한 불행은 방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375-381).

가족 제도의 유지와 보존에 중요한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과 존중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죽은 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어져 나간다고 베버는 보았다. 그래서 베버는 조선의 전통 장례식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 매우 상세한 장례 절차를 그의 여행기에 기록하였다(271-283). 그러나 독일인 수도원장에게 그 당시 한국의 전통 상례는 귀신 신앙에 의거한 조상숭배의 미신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병상에서는 무당이, 임종의 자리에서는 미신이, 그리고 무덤에서는 나침반[패첼]을 이용하는 지관(地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271). 과도한 장례비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서는 비판적 입장이지만, 그러한 자세가 바로 나를 있게 한 뿌리로서의 조상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가족에 대한 사랑, 희생, 의무 등의 덕목을 감당하게 만드는 밑받침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전통적 유교윤리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도 잘 조응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교도적 장례식(heidnische Begräbnis)”이라는 소제목을 붙인 장례식 장면의 촬영도 이루어졌다. 장례식 장면에서는 반혼, 상주의 두건, 문상객 맞이, 상여 나가기, 하관, 호곡, 위패, 신주단지 등에 대하여 자막을 처리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²¹⁾

18) Cfr. Norbert Weber, *Euntes in mundum universum. Gedanken über die Ziele, welche unserer Missionstätigkeit gesetzt sind; seinen geistlichen Söhnen*(St. Ottilien, 1. Aufl.: 1908; Stuttgart, 2. Aufl.: 1921).

19) Cfr. Norbert Weber, op. cit.(1917), p. 25.

20) Cfr. *Chronik der Kongregation von St. Ottilien*, Archiv St. Ottilien, 1925: “Chronik von Naipyeng vom Feb. bis Juli 1925.”; 선지훈, 『혼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식. 1925년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조선의 문화』, 『들숨날숨』 6(왜관: 성베네딕도회 수도원, 1999/10), 66-71쪽; 노르베르트 베버, 앞의 영상자료(2009): “김충각과 딸아 처녀의 조선 혼례” 부분 참조.

21) 선지훈, 『상례, 가장 엄숙하고 정중한 의례. 1925년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조선의 문화』, 『들숨날숨』 7(왜관: 성베네딕도회 수도원, 1999/11), 66-71쪽; 노르베르트 베버, 앞의 자료(2009): “이교도적 장례식” 부분 참조.

3. 노동공동체: 품앗이

성 베네딕도의 수도생활을 위한 모토가 바로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이다. 이처럼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은 애초부터 노동이 바로 성숙한 인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간파하고 있었다. 즉, 노동은 수도자의 핵심 덕목인 기도와 병치(並置)시킬 만큼 인간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의 양대 요소인 것이다.²²⁾

베네딕도회 수도자 노르베르트 베버가 보기에,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바탕으로 여긴 또 하나의 여건은 바로 노동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전통문화였다. 그 중에서도 그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정신을 간직한 ‘품앗이’(Pumasi)라는 관습의 가치에 주목한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품성이 한국인들의 마음가짐 속에 녹아들어 있는 표징이 바로 품앗이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들의 민족성은 이러한 거대한 농사일을 하는데 있어서 품앗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방법을 창안해 내었다. 열 명 내지 열다섯 명의 이웃 남정네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집 땅에서 함께 일한 다음, 이 그룹이 모두 둘째 집 경작지로 옮겨가 일하고, 다음은 그 다음 집으로… 그렇게 계속된다. 이 때 각자는 그가 탄 사람을 위해 일해 준만큼의 노동 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품앗이가 그 가부장제적 성향 때문에, 또한 공동의 것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양보한다는 점 때문에 첫눈에는 어떤 매력을 갖는다. 이 품앗이에는 함께 단합하고, 서로서로 돕고, 물론 다른 사람의 지원에 대한 신뢰와 궁핍 속에서도 저마다의 개인적인 기업적 욕망을 알린다는 민족 정신의 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동질감의 의식은 한국에서는 격언 안에서 그 불문율을 찾아볼 수 있다: ‘불행은 원수를 알지 못 한다.’[밑줄 필자](363).

그래서 이러한 상호협력의 공동체 정신은 그리스도교의 이웃사랑 정신과 부합한다고 파악한다. 이렇게 전통의 미풍양속이 외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에 들어있는 초자연적인 신앙으로의 초월은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원수의 집이 불타고 있다면 한국인은 30분 만에 복수심을 잊고 불 끄는 것을 돕는다. 이와 똑같이 품앗이에 있어서도 더 이상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같은 노동 시스템의 경제적 단점에 대해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저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면 납득은 하지만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의 고백: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하여, 그 누구도 관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어느 촌락에나 이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그의 발을 머슴을 통해 경작하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없

22) Cfr. Philipp Neri Maucher, “Arbeit schafft Missionserfolg. Gedanken zu ‘Euntes in mundum universum’ von Erzabt Norbert Weber OSB”, in: Basilius Doppelfeld, ed., *Mönche und Missionare. Wege und Weisen benediktinischer Missionsarbeit* (Münsterschwarzach, 1988), pp. 41-53. 이유재, 앞의 글(2005)에서 재인용.

을 것이다. 욕심꾸러기로 비방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결국 그가 마을을 떠나갈 때까지 오랜 동안 그를 편안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곳 청계동²³⁾은 천주교가 낡고 마비된 조직을 일정 부분 깨트렸지만, 외교인 마을은 어느 곳이나 오래된 엄격함이 지배하고 있다.”[밀줄 필자](364).

물론 베버는 품앗이가 지니고 있는 단점도 파악하여 소개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약점으로는 노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경제적으로 모두 일본인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베버가 보여주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품앗이는 실제로 큰 단점이 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는 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이웃 집 경작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큼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천천히 진행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작지를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지나칠 것이다. [중략] 자신의 노동 계획은 그가 다른 밭에서 보내야만 하는 노동일과, 또한 이웃사람들이 그의 경작지에 와서 일 해주는 노동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적 노동에 대한 스스로의 충동은 마비되고, 기상상황의 이용과 경작지의 상태 등등에 대한 개인적 능력과 이익에 대한 현명한 계산은 실종되고 만다. 품앗이의 이 같은 큰 단점은 한국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일본인들이 떼 지어 지방으로 몰려들어오고 고유의 개인적 숙련과 이익을 끼워 넣어 경작지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이미 정립된 정치와 같은 처지에 서기까지는 인식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인은 주인이고, 한국인은 노예다.”[밀줄 필자](364-365).

이와 같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득만을 앞세우는 사회보다는 이타적인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의 전통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메시지를 실천하는 토양 내지 누룩이 될 수 있다고 베버는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회란 앞서서도 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일본을 지칭한다(7-9). 더 나아가서는 물질주의의 병폐에 물들고 있는 서구의 현실에 대비시켜 그리스도교 정신이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다.²⁴⁾

4. 순교자를 배출한 전통

신앙의 가치를 생명보다 더 중시한 한국의 신앙 선조들의 전통과 그 거룩한 땅[토양]에

23) 안중근(1879~1910)의 아버지 안태훈이 근 400여 명의 일족을 이끌고 세운 천주교 교우촌, 황해도 신천군 두타면 청계리를 말한다. 안중근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며, 알자스 출신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빌렘 홍석구 신부(1860~1938)가 황해도 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곳이다.

24) 그것은 후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수도원 본원까지도 한국으로 옮기려는 구상을 구체화시켰던 적이 있다는 데에서도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인 신학생들의 교육을 덕원신학교로 보내서 계속하였다는 사실도 참조가 될 것이다.

대한 존경심 내지는 경탄하는 마음을 배버는 한국 도착 첫날²⁵⁾부터 가진다.

“작은 불빛들이 커다란 십자가로 변했다. 신자들이 촛불을 들고 십자가 행렬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촛불 행렬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이교의 어둔 밤을 꿰뚫고 나아가는 빛나는 십자가를 상징하듯 행렬은 서서히 수도원 쪽으로 움직였다. 이것은 백동(栢洞, 혜화동)-수도원이 위치한 언덕의 한국 지명이다-의 수도원장 신부님이 나에게 선물한, 부러진 십자가만큼이나 뜻이 깊었다. 이 십자가는 형장으로 가는 어느 한국인 순교자에게 담대한 믿음과 순교정신을 불어 넣어 준 것이었다고 한다. 서울에서의 첫날, 우리는 순교자의 땅에 감도는 장엄한 기운을 받아 순교에 대한 기억을 마음 깊이 새겼다.”(44).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때, 유럽인 선교사들은 내심 유럽 인종인 러시아 편을 들었고, 한국인 성직자들은 오히려 일본 편을 들었다고 전한다. 배버는 가톨릭을 위협하는 러시아(정교회) 보다는 일본이 승리한 것이 차라리 가톨릭 선교를 위하여서는 잘 된 결과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순교자의 피가 스민 이 영광된 나라가 하마터면 러시아의 가톨릭 박해 때문에 종교적으로 황폐해질 뻔했다.”(77).

용산 지역을 방문하면서 배버는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정치, 경제, 군사 여러 영역에서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중심지로 삼으려 한다고 말을 꺼낸 후, 그러나 그의 일행이 용산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그곳이 한국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의 성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역사의 대부분이 용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기가 용산과 한강 사이의 백사장에서 전개되었다. 거기에 형장이 있었다. 형장이야말로 고문과 처형을 증언하는 장소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여기서 피바다에 휩쓸렸던 것이다.”(91-92).

그리고 나서 배버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역사 및 박해사를 자세히 묘사한다(93-100). 특히 홍선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왕실 안팎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박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는 남다른 감회에 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대원군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것은 전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광된 시절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용산을 좀처럼 떠나지 못한 이유이다. 이 역사, 정말 남다른 데가 있다.”(93).

“이 나라의 통치자는 제 백성에 대한 분노를 공포와 전율로 표출했다. 그러나 신비로운 사랑과 넘볼 수 없는 신앙의 수호자인 순교 영웅들은, 그 모든 공포와 전율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을 덮은 채 한강은 탁하고 누런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낸다. 그 위로 삼성산이 빛나고 있었다. [중략] 나의 시선은 순교자의 피로 물든 그 장소를 찾고 있었다. 편협한 장사꾼 기질과 국가적 타산으로 수천 년 동안 폐쇄되어 있던 이 ‘죽은 백성’(people mort)

25) 1911년 2월 22일.

에게, 이리도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삶과 영웅적인 힘이 충만하다는 것을 위대한 순교자들은 피로써 증거 했다. 이런 힘이, 아니 이런 힘만이 죽어가는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교다. 자신의 피와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영웅이 그리도 많았는데, 이 백성이 ‘죽은 백성’일 리 없다. 다만 생기 넘치는 발전 도상에서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폭군의 압제에 시달리고, 양반들에게 착취당했을 따름이다. 감금과 고립과 죽음과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만 있다면, 이 백성은 그리스도교의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쁨에 충만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100).

Ⅲ. 결 론

노르베르트 베버 총원장이 1911년과 1925년에 한국을 두루 여행하면서 남긴, 당시 한국의 그리스도교를 비롯하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치밀하고도 방대한 기록과 영상물들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한국 천주교회의 실상 등을 독일 및 구미 각국에 깊이 있고도 상세하게 알렸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번역 및 주해, 그리고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방면에 걸쳐 매우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그간에 이루어진 종교문화의 변화 양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 당시 한국의 문화와 종교, 예술, 한국 사람과 역사에 대하여 따뜻한 눈길로 애정을 보였던 유럽인 수도 원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종교 다문화’라는 특징을 지니는 오늘의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서 서로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 간의 만남이 보여주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²⁶⁾ 또한, 그의 여행기 곳곳에 드러나는 한국의 전통종교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존중심과 열린 자세 등은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현대 종교인의 사명에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

그에 덧붙여서 이제 노르베르트 베버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상, 베버는 한국학 내지 한국 연구를 유럽에서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다. 그의 여행기, 스케치, 영화, 유물 수집, 상트 오티리엔 선교박물관 설립 등으로 베버는 누구보다 폭 넓은 한국 연구자이자, 최초의 한국학자로 불러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학계서는 그를 한국학의 원조로 파악하는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베버에 의하여 한국에 파견되었다가 독일로 돌아가서, 유럽 최초로 뮌헨대학교의 한국학 교수가 된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 1884~1974)²⁷⁾가 한국학을 정

26) 박일영,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가톨릭출판사, 2008), 17-18쪽, 82-91쪽 참조.

초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지만, 베버야말로 서구에서 한국학을 처음으로 개척한 연구자인 것이다. 또한 베버가 보여준 오늘날 ‘새로운 복음화’²⁸⁾ 개념에 대한 선구적 각성이라든가, 현대 선교학의 정립에 기여하여 독일의 대학교에 선교학 강좌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영향²⁹⁾을 끼친 점도 새로운 조명과 더 깊은 연구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지면 관계상, 노르베르트 베버가 이해한 한국 그리스도교의 바탕을 살펴보는 데서 일단 그쳤다. 베버가 내세운 한국 그리스도교의 바탕은 네 가지로 정리되는바 첫째, 내면의 겸손과 절제, 둘째, 가족 중시 문화, 셋째, 노동공동체인 품앗이 그리고 넷째, 순교자를 배출한 전통이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로는 우선적으로 베버의 이와 같은 인식 내지 이해가 한국의 선교현장에서 어떠한 정책 노선과 실천으로 나타났는가를 규명하는 일이겠다. 교육선교를 주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베네딕도회의 활동상과 공과,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심이 남달랐던 베버 총원장의 태도가 선교와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미친 영향, 자금력을 동원한 개신교와 맞닥뜨리면서 적응해 간 과정, 일제 당국의 한국문화 말살정책에 대한 경각심 고취, 사회선교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7) Andreas Eckardt(玉樂安, 1884~1974)는 1909년 한국에 파견되어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연구와 답사를 통하여 한국의 역사, 풍습, 종교, 미술, 음악, 문학 등에 대하여 상당한 업적을 쌓았다. 1928년 독일로 귀국한 후, 한국학 관련 논저를 여러 편 남겼다. 뮌헨 대학교에서 최초로 한국학 교수좌를 차지함으로써 유럽 한국학의 원조로 여겨져 왔다. Andreas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Leipzig: Verlag Karl W. Hiersemann, 1929)(권영필 역, 『에카르트 朝鮮美術史』, 열화당, 2003), 381쪽: “안드레 에카르트 연보” 참조.

28) 강영옥·홍근표,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 2011 연구보고서』(유인물), 천주교 서울 대교구 사목국, 2011년 10월;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편,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제 개요』 답변서 마련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유인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년 6월 27일 참조.

29) 김웅태, 『선교의 역사와 개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2, 128-129쪽 참조. 베네딕도회 소속의 선교학자가 유럽 대학 최초로 선교학 강좌를 개설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선교학의 재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 「노르베르트 베버 총원장이 마르체타에게 보낸 서한」, 『교회와 역사 6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 『독일 쌍트 오티리언 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품 정리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2009.
- 김웅태, 『선교의 역사와 개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2.
- 박근제, 「19세기 후반 독일의 사회문화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제11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박일영,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가톨릭출판사, 2008.
- _____, 「노르베르트 베버가 본 조선의 종교」, 『종교연구』, 55, 한국종교학회, 2009.
- _____, 「한국 사머니즘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대응태도 비교연구. 파리외방전교회와 성 베네딕도회 오티리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1, 2010.
- 박일영 외,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전3권, 가톨릭출판사, 2006.
- 백 플라치도, 「한국에서의 초기 베네딕도회의 선교방침」, 『한국교회사 논문집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블랙, 케이 E., & 테거, 에크하르트, 「聖 오티리언 수도원 소장 鄭敼 筆 진경산수화」, 『미술사연구』, 제15호, 2001.
- 선지훈, 「혼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식. 1925년 노베르트 베버가 본 조선의 문화」, 『들숨날숨』, 6, 왜관: 성베네딕도회 수도원, 1999/10, 66-71쪽.
- _____,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선교활동」, 『교회사연구』, 29호, 2007.
- _____, 「왜관 수도원의 수도생활과 선교활동, 시련과 극복의 역사」, 『성 베네딕도회의 한국 선교와 문화활동』, 심포지엄 자료집, 왜관, 2009, 43-66쪽.
- 시청각종교교육연구회,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1920년대 풍물』[비디오테이프, 90분],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1986.
- 암라인, 안드레아스, 「일곱 가지 근본사상」, 『코이노니아』 제9집, 한국 베네딕도 수도회 연합, 1984.
- 왜관 성 마오로 뵐라치도 수도원 편, 『옛 등걸에 새순아-베네딕도회 성 오딜리아 수족 100년』, 분도출판사, 1985.
- 유준영, 「20세기 초 Norbert Weber의 한국 미술품 수집과 비평」, 『미술사학보』, 제9호, 미술사학연구회, 1996.
- 이유림, 「베버, 노르베르트」, 『한국가톨릭대사전 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 이유재,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본 식민지 조선: 가톨릭 선교의 근대성」, 『서양사연구』, 제32집, 한국서양사연구회, 2005, 149-187쪽.
- _____, 「식민지 조선에서 분도회의 지식 생산과 교육」, 『성 베네딕도회의 한국 선교와 문화활동』, 심포지엄 자료집, 왜관, 2009, 179-188쪽.
- 장정란, 「외국 선교회의 한국 선교-독일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교육 활동」, 근현대한국가톨릭연구단,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상권, 가톨릭출판사, 2003.

- _____. 「외국 선교회의 한국 선교-독일 베네딕도회의 원산교구시대(1920-1949)」。 근현대한국가톨릭연구단.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중권. 가톨릭출판사. 2005.
- 조현범. 「분도회 선교사들의 한국문화 연구」。 『성 베네딕도회의 한국 선교와 문화활동』. 심포지엄 자료집. 왜관. 2009. 105-139쪽.
- 최석우. 「한국 분도회의 초기 수도생활과 교육사업」。 『한국교회사의 탐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a.
- _____. 「재한 천주교 선교사의 한국관과 선교정책」。 『한국교회사의 탐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b.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원산교구 연대기』.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1.
- _____. 『함경도 천주교회사』.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 한국방송(KBS)-TV: 역사스페셜 〈수도원으로 간 겸재 정선—80년만의 귀환〉 2009.10.3. 19:58~20:58.
- Chronik der Kongregation von St. Ottilien*. Archiv St. Ottilien. 1950.
- Doppelfeld, B., *Mönche und Missionare, Wege und Weisen Benediktinischer Missionsarbeit*. Münsterschwarzach. 1988.
- Kaspar, A., Berger, P., *Hwan Gab. 60 Jahre, Benediktinermision in Korea und der Mandschurei*. Muensterschwarzach. 1973.
- Mahr, Johannes. “Sein Reich ist zunächst auf dieser Welt.” Erzabt Norbert Weber als Organisator benediktinischer Missionsarbeit. in: Godfrey Sieber/Cyrrill Schäffer, ed. *Beständigkeit und Sendung*. St. Ottilien. 2003. pp. 103-179.
- _____. “Wie meine Mutter den Sauerteig benützt hat”. 『성 베네딕도회의 한국 선교와 문화활동』. 심포지엄 자료집. 왜관. 2009a. 5-38쪽.
- _____. *Aufgehobene Häuser, Missionsbenediktiner in Korea und Nordost-China*. St. Ottilien: EOS Verlag. 2009b[왜관수도원 편역. 『분도통사』. 분도출판사. 2009].
- Missionsblaetter*. Jahrgang 12-53. Erzabtei Ottilien. 1908-1949.
- Renner, F., “Die Berufung der Benediktiner nach Koea und Manchukuo”. in: *Der fuenfornige Leuchter II*. Erzabtei Ottilien. 1971.
- Schäffer, Cyrrill. *Ave Maris Stella, Größe und Grenzen des ersten Erzabtes von St. Ottilien P. Norbert Weber OSB(1870-1956)*. Lizentiatsarbeit Universität München 2000.
- Son Chi-Hun, “Studien zur Benediktinischen Missionsmethode von 1909 bis 1949 in Korea und in der Mandschurei”. *Lizentiatarbeit*. Universitaet Muenchen. 1996.
- Weber, Norbert. *Im Lande der Morgenstille*. Oberbayern: Missionsverlag St. Ottilien. 재판: 1923[초판: 1914]박일영/장정란 공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분도출판사. 2012. 근간].
- _____. *Gottes Wege. Ein Blick in die koreanische Missionsgeschichte*. St. Ottilien. 1917.
- _____. *Euntes in mundum universum, Gedanken über die Ziele, welche unserer Missionstätigkeit gesetzt sind; seinen geistlichen Söhnen*. Stuttgart. 1921.
- _____. *In den Diamantenbergen Koreas*. Oberbayern: Missionsverlag St. Ottilien.

1927[김영자 역. 『수도사와 금강산』. 푸른 숲. 1999].

원고접수 : 2011년 11월 14일 1차 심사 : 12월 6일 게재승인일 : 12월 18일

연구자소개 : 박일영

① 전공 : 종교학 / 소속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② 관심영역 : 한국종교, 샤머니즘, 그리스도교

③ 주요논저 :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④ E-mail : onezero@catholic.ac.kr

Abstract

**Christianity in Korea in View of Norbert Weber:
Centering on the Disposition of Korean Christianity**

Park, Ilyou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orbert Weber was the arch-abbot of the Benedictine Abbey of St. Ottilien, Germany. He sent missionaries to Korea for the main purpose of education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rchi-abbot Weber left numerous materials about religion and belief, culture and arts of Korea at that time. These vast and valuable materials are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academic use of the inner circle of catholic church, but also have immeasurable value for the whole field of humanistic research on Korea. This study is an approach to the christianity in Korean in the age of the 1910's and 1920's, concerning with the visit of Norbert Weber. According to his written works and visual materials, Korea has got well prepared disposition for Catholicism. There are four elements for the disposition: firstly, modesty and moderation in the mind of Korean people; secondly, a serious view of family; thirdly, vitalized labour community *pumashik*; fourthly, martyr's tradition.

In this article, I try to re-illuminate the warm-hearted attitude of the European arch-abbot on Korean culture, arts, people and history. Such kind of attitude becomes a shining example in multi-religious and-cultural society for the mission of modern religious people in the contex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in Korean and all over the world. As a matter of fact, Weber was the ringleader of Korean studies in Europe. His book of trip in Korea, his outstanding sketches, film making, relic collection, and founding of missionary museum in St. Ottilien make himself as the first scholar of Korean studies in Europe in the strict sense of the concept. Additionally, it is required for a deeper and wider research about his influence on the renewed awakening in the idea of 'new evangelization' and/or on his pioneering contribution to treat missiology and religious studies as regular subjects at German universities.

Key words: Norbert Weber, A Native Culture, Modesty and Moderation, A Serious View of Family, Labour Community, Pumashi, Martyr's Tradition